

국익 중심의 대미 관세협상으로 수출은 UP 걱정은 DOWN

(해당 실: 국제, 과: 외자과(40%)·통상정책과(30%)·대총과(30%), 담당자: 황인환사무관, 전화번호 044-215-7672)

I. 추진 배경

- 美 新정부가 '美 우선 무역정책' 기조 하에, 미국에 대한 수출품에 **높은 수준의 관세**(한국은 상호관세 25%, 자동차·부품 관세 25% 등) 부과
→ 우리 수출기업이 큰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 + **경제성장 둔화**

II. 정책 내용

-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협력하여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수석차레의 실무급·고위급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미측에 전달
 - 수출경쟁력 유지 및 관세부담 완화,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 등 우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총력을 다해 미측과 협상
 - 경제부총리가 임명 즉시 방미하여 큰 틀에서 합의(7.30일)하였고, 한-미 정상회담(10.29일)을 계기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
 - ⇒ 미측은 상호관세·자동차관세 인하(25%→15%) 및 제네릭의약품·핵심광물 등 관세 면제 +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시 우대 예정
 - 3,500억불 규모의 한-미간 협력사업 추진 및 비관세·경제안보 분야 협력 등을 포괄한 합의안 도출
 -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
- * 연 200억불 한도,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한 투자, 외환시장 불안시 시기·규모 조정 可 등

III. 성과 및 기대효과

- (관세 인하)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주요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 매년 수조원 이상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
- (미국진출 확대) 대미투자 패키지 및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우리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점유율 확대에 기여 예상
 - 프로젝트 추진시 가급적 한국기업 선정 + 미국은 대미 투자시 필요한 토지·용수·전력 공급, 규제절차 신속 진행 등 지원 예정
 - 대미 투자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조달 및 운용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MOU가 발표되는 대로 신속히 마련

참고

對美 관세협상 경과 및 합의 결과 관련 언론 보도

구윤철 부총리, 美 상무부장관 협의(7.29~30)



구윤철 부총리,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7.30)



구윤철 부총리, 美 재무부장관 협의(8.26)



한-미 정상회담 실시(10.29)



관세 인하 합의 결과 보도(10.30, 동아일보)

자동차 관세 25% → 15%로 인하... 반도체는 '대만수준' 적용

경주 아시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협정의 후속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으로 수출 시 한국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되던 25%의 고율 관세가 15%로 낮아지게 됐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짐에 따라 월 5000억 원에 달하는 수출 피해를 봐왔던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상호관세는 올해 7월 말 한미 무역협정의 직후부터 15%가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이 앞서 경쟁국인 일본, EU와 15% 자동차 관세에 합의하면서 우리 기업은 경쟁사들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을 감수하던 상황이었다.

조선 수주 확대 기대(10.29, 서울경제)

구체화된 마스가...韓기업 수주 기회 열린다

한미가 29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입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이 조선업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선박금융을 활용하도록 하면서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에 힘을 보탠다. 이날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한국 기업)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최근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한 법안 개정 추진 움직임과 맞물려 한국 조선사들의 미 군함 건조 등 참여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영계, 협상 타결 환영(10.30일, 조세일보)

경영계, '한미 관세 협상' 일제히 환영... "산업 경쟁력 회복 계기"

한미 양국이 최근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타결한 데 대해 경영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각각 논평을 통해 "이번 협상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미 경제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계는 이번 협상이 자동차 관세 인하와 금융투자 조율을 통해 대미 교역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첨단기술·조선·에너지 등 미래 산업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주요 외신, 협상 결과 호평(10.29, 매경이코노미)

"일보다 더 많은 양보 얻어낸 한국"...외신 '관세협상' 호평

WSJ "韓 협상 결과, 타국 기준 될 것"
블룸버그 "대출·보증 포함은 美 핵심적 양보"

한미 정상회담으로 타결된 관세협상을 두고 외신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반응했다.

한국과 미국은 29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는 일본의 5500억달러와 비교해 적고 또 한국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은 미국 측에 투자 대상 결정권을 넘겨줬다는 게 NYT 설명이다. 또 일본은 트럼프 측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